

'카타르의 기적' ... 한국 축구, 월드컵 16강 진출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기적 같은 승리로 12년 만이자 방문 월드컵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2일 오전 7시(이하 미 서부시간 기준) 카타르 알리안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황희찬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를 거두고 1승1무1패를 기록, 역시 1승1무1패를 기록한 우루과이를 다득점차로 누르고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경기가 끝나자 '태극전사' 캡틴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누워 울었다.



▲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성공을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 사진=연합뉴스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H조 실시간 순위에서 최하위인 4위였다. 전반전을 1-1로 마쳐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경우 한국의 승점은 2였다. 같은 시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우루과이가 2-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났다. 경기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두 팀 모두 승점은 4였다.

우루과이가 결국 가나를 2-0으로 꺾으면서 승점 4가 됐지만 다득점에서 4-2로 앞선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골득실 차도 같았다.

한국은 전반 5분 포르투갈의 공격수 히카르두 오르타에 먼저 골을 허용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균형을 맞췄다. 전반 27분 수비수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헬스트링(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을 뛰지 못했던 황희찬은 후반 21분 이재성과 교체 투입됐고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드라마 같은 결승골을 작렬시키며 한국을 16강 무대로 이끌었다.

한국은 5일 오전 11시 도하에 있는 스타디움974에서 G조 1위를 상대로 방문 월드컵 사상 첫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육일기 OUT!' ... '2022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지난 20일 개막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되고 16강 진출팀들 간에 8강진출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지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방문 월드컵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브라질과 8강 진출을 위한 한 판을 벌인다.

■ 육일기 OUT!



▲ FIFA 제지로 육일기를 철거하고 있는 일본 축구팬. 사진=twitter(asunnydisposish)

지난 27일(이하 미 서부 시간 기준) 카타르 월드컵 일본과 코스타리카전이 열린 카타르 알리안 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일본 팬들이 육일기를 흔들고 응원을 펼쳤다. 일부 일본 팬들은 경기

장에서 육일기를 걸려는 시도를 했지만 FIFA가 곧바로 제지해 경기장 관계자에 의해 육일기가 철거됐다.

■ 자국 패배에도 축제 벌인 국민들

이란은 지난 29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미국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0-1로 패하면서 1승2패 조 3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패배와 동시에 이란 국민은 축제를 벌였다. 이란 국민은 이란 축구 대표팀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축제 영상을 올린 이란 국민들은 이 축제가 반정부 시위 국면에서 월드컵 참가를 강행한 대표팀을 비난하고, 항의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 '문자 테러' 당한 캐나다 골키퍼

캐나다 축구 대표팀 골키퍼 밀런 보리언이 지난 27일 크로아티아와의 F조 2차전(1 대 4 캐나다 패) 뒤 '문자 테러' 를 당했다. 보리언은 크로아티아 태생으로 어릴 적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피해 부모와 캐나다로 이주했다. 프로 생활은 크로아티아와 군비 경쟁을 벌이는 세르비아에서 하고 대표팀으로는 캐나다를 택했는데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팬들은 보리언을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 월드컵 최초 여성 주심



▲ 월드컵 사상 첫 여성 주심인 스테파니 프라페르.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2일 멕시코와 폴란드전에서 대기심으로 나서 92년 월드컵 역사에서 금녀의 벽을 깬 프라페르는 이달 1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E조 조별리그 3차전 독일과 코스타리카전의 주심을 맡았다. 1930년 우루과이 초대 월드컵부터 92년 역사에서 여성 심판이 월드컵 본선에서 주심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